



스위스 재보험, 매우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로 2011년 1분기 6억 6천 5백만 달러 손실 기록, 2011년 4월 갱신은 성공적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2011년 1분기에 발생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 보험손실로 6억 6천 5백만 달러 손실 기록
- 견실한 자산운용 실적
- 성공적인 2011년 4월 갱신, 손해보험 부문 요율 개선 전망
- 시장 기회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입지 확보

2011년 5월 5일, 취리히 – 2010년 1분기 1억 5천 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스위스 재보험은 2011년 1분기 6억 6천 5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부문은 일본과 뉴질랜드의 지진, 호주의 홍수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다.

스위스 재보험의 CEO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2011년 1분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손실이 발생했다. 그 후 4월 갱신에서 우리는 신중한 언더라이팅 접근방식의 기초를 유지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손해보험 특약 갱신 실적은 13% 증가했으며, 요율 적정성 면에서도 시장 평균을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다소 감소한 2백 4십 4억 달러**

스위스 재보험은 2011년 1분기 6억 6천 5백만 달러의 손실(전년 동기 순익 1억 5천 8백만 달러)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7%를 기록한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10.7%로 감소했으며, 주당순이익은 전년 동기 0.49 스위스프랑(0.46 달러)에서 -1.84 스위스프랑(-1.94 달러)으로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9억 달러 감소한 2백 4십 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 12월 말 68.99 스위스프랑(74.02 달러)였던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11년 3월 말 현재 65.19 스위스프랑(71.26 달러)을 기록했다.

**대규모 자연재해 손실에도 견실한 자산운용 실적 기록**

손해보험 부문은 2010년 1분기 2억 5천 9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11년 1분기에는 12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23억 달러에 달하는 자연재해 손실(세전)의 영향이다. 전년 동기 109.4%를 기록했던 손해보험 부문 합산비율은 2011년 1분기 163.7%(할인율 적용 전 162.2%)로 증가했다. 자연재해가 합산비율에 미친 순영향은 89.4% 포인트로, 이는 예상 수준을 79.8% 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0년 1분기 2억 4천 5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생명보험 부문은 올 1분기 1억 4천 4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의 차이는 불리하게 작용한 사망률과 변액연금 사업 실적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유리하게 작용한 질병률로 인해 일부 상쇄되었다. 2011년 1분기 지급률은 89.4%로 증가했다.

전년 1분기 9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자산운용 부문은 올 해 1분기에도 12억 달러의 견실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전년도 1분기 2.8%에서 4.0%로 상승했다.

### 성공적인 2011년 4월 갱신, 손해보험 부문 효율 개선 전망

스위스 재보험 손해보험 특약 갱신의 약 10%를 차지하는 2011년 4월 갱신 기간 중 스위스 재보험은 여전히 신중한 언더라이팅 접근방식의 기초를 유지했다. 4월 계약 갱신은 한국, 일본, 인도, 일부 유럽 및 미주, 그 밖의 아시아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4월 갱신 중 스위스재보험의 손해보험 특약 수재보험료는 전년 대비 4월 갱신은 5% 증가했으며 올 해 들어 현재까지의 보험료는 13%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자연재해는 손해보험 시장의 효율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스위스 재보험은 최근의 자연재해, 저금리, 수 년에 걸친 효율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경기 주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장기회 활용 입지 확보

2011년 1분기는 보험 및 재보험 업계의 견실성을 시험해 보는 시기였다. 집중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한 2011년은 역사상 자연재해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 재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 탁월한 자본력: 스위스 재보험은 최고의 자본력을 갖춘 재보험사 중 하나로, 복잡한 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언더라이팅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다양한 리스크 및 지역에 걸친 국제적 다각화: 이는 스위스재보험의 핵심적인 강점이 되고 있다.
- 탁월한 재/보험 전문지식 및 혁신 역량: 이는 고객사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스테판 리페는 “우리는 5개년 목표를 확고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 1분기에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로 인해 추가적인 도전과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또한 우리가 이미 예상한 바 있는 2012/2013년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1 분기 실적 자료 (2011년 1 분기 와 2010년 1 분기 비교)

		2010 Q4	2010 Q4
전체	순이익(백만 달러)	[-665]	158
	주당순이익(달러)	[-1.94]	0.46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	[-10.7]	2.7
손해보험	영업이익(백만 달러)	[-1233]	259
	합산율(% , 할인을 적용 후/전)	[163.7/162.2]	109.4/107.8
생명보험	영업이익(백만 달러)	[144]	245
	지급률(%)	[89.4]	89.1
자산운용	투자수익률(%)	[4.0]	2.8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쾰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